

작가로서의 삶을 말해주는 이들

윤석남 · 주재환

글 | 정정엽 | 작가

↖ ↗ 술은 길 없는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누군가 그 길을 찾았을 때야 비로소 길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예술가는 길을 찾는 순간 그 길을 버리고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운명에 처한다. 예술은 길을 찾은 이가 가는 길이 아니라 길 찾기의 고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예술만이 그러하지 않으리라. 분열을 조장하는 이 널부러진 세상 속에서 자신의 고유성을 간직하며 창조적 삶을 살고자하는 사람에게도 길 찾기의 지난함은 존재한다. 스피버그가 인생에서 지루한 부분을 뺀 나머지가 영화라고 했듯이 잠깐의 열광 뒤에 남은 일상과 현실이 훨씬 더 오랫동안 진하게 우리 삶을 지배한다.

미술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이 간극의 고민 자체가 중요한 예술적 화두이기도 하다. 요절한 천재가 아닌 이상 예술가로서 살아간다는 문제는 또 다른 창작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지점인 것이다. 이 산만함 속에서 예술하기도 힘들지만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살아남은 자의 과제이다. 간혹 작품만으로도 이 지점을 통과한 작가를 만나지만 지속적으로 내 일상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방식까지 실험한 작가를 만났을 때 비로소 피가 통한다. 예술의 위대함을 알고 그것의 무력감도 함께 지고 가는, 그럼에도 분열하지 않고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전범을 보여준 작가에게서만이 온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윤석남은 나이 사십에 그림을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미대도 안 나온 여자 나이 사십. 아무도 길을 가르쳐주지 않지만 기대도 없는 중년의 여성에게 오히려 어디로 가든 길이 될 수 있는 빈자의 충만함은 차라리 시작을 쉽게 했을 것이다. 다행히 이 사람의 작업에 대한 열정은 강을 넘었고 예술적 재능은 모자람이 없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한국미술관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최소한의 시민의식과 나레이션의 미학, 여성현실에 입각한 연대의식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미술 형식 안에 문학성을 끌어들이고 여성미술연구모임에 참여하고 현실문화연구출판사에 출사를 하고 이후 여성문화예술기획에 대들보 역할을 하면서 길을 만들어 낸다. 특히 이 모든 행보를 젊은 작가들과 함께 하면서 선배이면서 동료일 수 있는 연대의 틀을 만들어 간다.



◀ 성진강 ▶ 윤석남작 ▶ 나무 위에 아크릴 ▶ 1997

이 작가를 말한다 는 미술계의 소장과 작가들이 말하는 나의 스승 이야기이다. 개성있는 색채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개척하고 있는 열 두 명의 작가가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리고 존경하는 정신적 스승을 소개한다

그는 이러한 행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본인의 겸손한 품성에도 기인하지만 예술의 천재신화만큼이나 완강한, 작가는 작품으로 말해야 한다는 불문율에 그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더욱 이러한 행보가 그에게 가져다주었을 부담의 무게를 짐작해 본다. 또한 이것은 제도권 미술 안에서 행해지는 미술정치와는 전혀 다른 문맥이기 때문이다. 작가가 자신의 목소리에 예술로 응답하는 사람이라면 내부의 총체적 목소리에 부응한 충실한 그의 행적들은 미술의 갇힌 세계 안에 머물지 않는 더 큰 틀을 가진 작가임을 드러낸다.

목각에 먹으로 단번에 그려진 그녀의 많은 얼굴들은 나무에 스며들어 이 땅에서 소리 없이 살다간 여성들의 넋을 조용히 위로한다. 수호신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또한 보통의 대가가 제도교육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고도 화실에 틀어 앉아 수십 년 단련하여 얻어낸 원색의 기교를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훌쩍 뛰어 넘는다. 인물의 치마저고리에 칠해진 수많은 조각보 같은 색감들은 스

스로 신명나서 칠해진 듯 보는 사람도 발랄해진다. 옛날 엄마의 보자기를 둘러쓰고 이리저리 돌아본 감흥이 되살아난다. 못 견디서 배위두었던 붓글씨의 필력은 인물의 표정을 낙점 할 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 동안 열망을 간직하며 온 몸 구석구석 채워왔던 삶의 조각들은 아무 곳에서나 작품으로 발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애석하게도 늦게 시작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요절한 천재가 되기는 틀려 버렸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쉽게 찾아지지 않는 이런 작가를 나는 오래 보고 싶다.

주재환의 '도망가는 임신부'. 임신부가 도망가다니, 아니! 임신부를 달리게 하다니, 그런데 뱃속의 아이도 달리고 있다. 그것도 경쾌하게 날 듯이 달리고 있다. 이것을 다루는 방식조차 얼마나 가벼운지-날렵한 종이에 임신부 형태를 오려 살짝 건어올리고 임신부 뱃속에는 아기를 슬며시 그려 넣었다. 이 가식 없는 형식에 유머의 날개를 단 상상력은 달리의 상상력보다 위대하다. 일상의 고통과 제주 넘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기를 뱃속에 넣고 달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주재환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힘은 남의 고통을 제것으로 느끼지만 어찌할 수 없음의 현실도 주머니에 넣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유유히 살기로 한 자유정신에 있다.



◀ 도망가는 임신부 ▶ 주재환작 ▶ 종이 오려내기 ▶ 1998

유머보다 한 단계 위인 예술의 자유정신도 그가 현실과 관계 맺어온 삶의 방식에 모두 녹아 있다. 그가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선선히 예술을 바라보다가 간혹 삼깃돈 꺼내듯이 범상치 않은 몇몇 작품을 보여주긴 했지만 1985년 민족미술협회의 초대회장을 맡을 당시 주재환은 개인전 한번 번듯하게 치루지 않은 오십을 바라보는 작가였다. 그럼에도 그는 태연하고도 덩덤한 자세로 때로는 긴밀하게 때로는 자신의 흐름대로 그 시절과 관계 맺기를 지속해 왔다. 한국사회는 예술가에게 도망갈 카드를 한 손에 쥐어주고는 어느 치열한 순간이 오면 그 동안 관계 없었음에 갈등 없이 예술가의 존재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사회다. 이 속에서 예술가가 사회와 관계 맺기란 예의 그 길 없는 길을 가는 막막함이 존재한다. 그나마 이 구조를 일찍 알아버린 총명한 젊은 예술가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불평을 한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는다. 뚜렷한 목적을 만들 생각 없이도 길을 간다. 그의 유머가 그냥 생기지 않았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구질구질한 현세간에서 침몰하지 않기 위한 자기 방편인 것이다. 냉소를 돌아 나온 유머를 갖는다는 것은 치열함의 척도이다. 나는 그에게서 완만히 흐르는 치열함을 본다.

이미 만들어진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 설득력 있게 길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위안이 된다. 더구나 그들과 동시대를 호흡하고 여차하면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SK

◆ 글쓴이 정정엽(eiperi@hanmail.net)은

이화여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현재 인천민족미술협회 회원,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프로젝트 그룹 '입김'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